

‘경북형 분산에너지’로 거대 에너지 기업 발길 이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착수보고회 지원센터·지역별 전력비 등 논의
울 7월 특화지역 지정 신청 예정
반도체·데이터 기업 등 유치 ‘힘’
일자리 증대·경제 재활성 기대

경북도는 14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경북도와 시·군, 관계기관, 에너지 관련 기업, 용역 수행 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과업 추진 방향과 계획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에너지를 말한다. 지난해 6월 공포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식 전력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설치의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지역별 전기요금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비에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안 마련 등을 위해 실시한다. 경부연구원이 수행하며 용역비 9500만원에 용역기간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10개월이다. 용역의 주요 과업은 △분산에너지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개념 정립 및 전력 수급 계획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사업 모델 및 적용 규제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유치 전략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등으로 실용성 있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시·군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오는 7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보완하고 구체화한 후 최종 결과를 가지고 경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의 근거 조항을 담고 있어 그간 경북도가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정책토론회와 에너지분권 포럼 개최, 전문가그룹 자문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장서 온 만큼 이번 법 시행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곤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200%를 넘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지역 여건 또한 우수해 분산에너지 사업의 최적지”라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신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대구총선장애인연대 출범 14일 대구 중구 도시철도 2호선 반월당역 승차장에서 장애인단체 등 3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구지역2024총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출범 및 장애인 권리강화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대구, 여성중소수 ‘전국 4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진면모 ‘외국인 도민’ 키우는 글로벌 학당 문 활짝

총 13만개 지역 중기비율 중 39% 자금지원·세미나 등 지원 성과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여성중소기업의 수 (2021년 기준)는 313만개, 대구지역의 여성중소기업의 수는 약 13만개로 수도권을 제외하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세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세는 여성기업을 지역경제 성장의 주역으로 육성코자 대구시

와 민간이 적극 협력한 분야별(자금조달, 판로개척, 창업교육 등) 지원이 그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먼저 여성기업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는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으로 대출이자(1.3%~2.2%)를 지원 중이며 지난해 44개 여성기업이 1억9200만원 상당의 이자 혜택을 받았고 올해는 1월 15일부터 신청 및 집수를 받고 있다. 판로확보 지원을 위해 대구시는 지역의 대표 여성경제인 단체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와 함께 ‘여성경제인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전남 순천시와 ‘동서경제교류회’로 영호남 여성기업인 네트워크 확장의 초석을 다졌고 대구지역 여성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여성경제인대회’는 우수 여성기업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 경영 애로 현장상담 창구도 운영해 고충해소에 기여했다. 더 나아가 올해는 대구지역 여성 CEO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경영혁신 세미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여성벤처협회 대구경북지회’와 ‘대구여성벤처기업 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여성벤처CEO 베트남 무역상담회에 여성기업 23개사가 참여해 상담 62건과 계약추진액 130만2000달러 성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남에 지속적인 수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지난해 3월 달구벌여성창업보육센터를 개소해 17개 업체가 입주 중이며 IT 분야 여성창업자 대상 교육, 컨설팅 사업도 지원하는 등 앞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안중곤 시 경제국장은 “여성기업은 대구중소기업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경제의 비중과 기여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해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여성들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자체 최초 신설, 안정 정착 일조
경북도는 14일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이철우 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박선하 도의원, 도기욱 도의원, 대학교총장, 외국인 유학생 등 1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했다. 경북글로벌학당은 외국인의 안정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언어교육이 필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외국인의 국내 적응과 사회통합에 대비하고자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경북 글로벌 학당을 신설하게 됐다. 경북 글로벌 학당은 27개국 총 680명의 유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진

행될 예정이며 유학생 교육과정(2주간)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정(1일)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어 토픽, 외국인 정책, 법제도, 생활정보 문화·산업·경제·정주 여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했으며 산업현장도 방문한다. 올해 5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 후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북도는 향후 교육과정 확대 및 다변화, 수료자 비자 발급 인센티브, 일자리 매칭 및 사회적인 지원 등을 추진해 경북 글로벌 학당의 정착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 우수 모델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의 향토로 새로운 대한민국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한수원 이전’ 해야 경주가 산다

경주의정포럼 세미나 600명 참석 손영하 “한수원 경주대 이전” 강조 추진위 구성·서명운동 추진 ‘박차’

경주의정포럼은 지난 13일 경주서라벌문화회관에서 소멸도시 경주살리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라 천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고도 경주는 지난 2018년 8월 한국고용연구원에서 소멸위험도시로 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지역 각 단체 대표를 비롯 6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당면한 경주의 위기 탈출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제1주제를 발표한 김중현 배재대학교 교수는 “천년고도 경주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주시의 중심가에 있는 경주역사 부지에 파리의 에펠탑 같은 관광 명물을 세우고 천년고도의 역사 문화 관광의 세계적 명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또 제2주제를 발표한 손영하 창신대학교 교수는 “소멸 위험에 처한 경주를 살리는 길은 산속에 있는 한수원을 경주대학교의 자리에 이전시키는 것이다. 동시에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수백 개의 원자력 관련 기업이 따라오면 경주는 에너지 스마트 시티, 부자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 시민들이 주권 행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와 600여명의 시민 중에는 “오늘 논의된 죽어가는 경주살리기 방안은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한수원 경주대 이전 추진위원회’를 당장 결성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경주의정포럼 회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세미나를 마친 후 한수원 경주대 이전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김일운 경주대 총장을 찾아가 한수원 경주대 이전을 위해 경주대학교를 내놓으라고 요청하고 확인 서명을 강요했다.

또 한수원 경주대 이전과 수백 개 관련 기업의 경주 유치, 경주 원자력에너지 매가, 경주역사 세계적 명소 건립을 위해서는 5년 경력의 김일운 총장이 국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경주가 처한 소멸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과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경주 살리기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 오늘 뜻깊은 포럼을 통해 경주살리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개회 인사를 했다.

한편 저출생 고령화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수가 가임여성(20-39세) 수보다 2배가 많으면 ‘소멸위험지수’가 0.5로 그 도시는 소멸 위험에 처했다고 본다.

경주시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지난 1980년대 기준으로 인구수는 30만 명이었다. 10년 전 2010년대에는 26만 명이었으며 현재 24만명이 됐다. 출생자와 사망자를 상계해서 최근까지 해마다 2000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서경규seoul1411@hanmail.net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인터뷰

‘옳은 길 가는 바른 정치’... 진심 통하는 정치인으로

김영식 구미를 국힘 예비후보 구미 재도약·부흥·소멸 ‘최우선’ KTX동구미역·신공항 연계 등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 구축 박차



주찬 의장 등)들은 아니라고 봤는 지는 모르겠다. 왜 나갔는지는 본인들이 잘 알 것이고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다. 난

한 인제가 구미에 오도록 만들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멀리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소통은 잘 되는지?

-윤 대통령하고는 술자리를 같이하면서 소통한 바 있으며 지난해 1월 금오공대서 대통령 주제로 제1차 인재양성 전략 회의가 있었다. 그 당시에 대통령을 비롯 국무총리, 장관 등이 참석했는데 당시에 참 보람 있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최근에 만나서 제 정치적 가치관, 소명을 밝힌 바 있다.

▶구미시의 주요 현안·향후 계획은?

-정치는 힘이 있어야 한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구축되듯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원하는 인프라 구축이 돼야 한다.

구미의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메타버스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 유치가 주요 현안이다.

구미에는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밸리 구축사업과 XR, VR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뿐 아니라 메타버스 경험 실현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구미의 신성장 동력이 될 반도체 특화단지 및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가 유치됨에 따라 철도·도로 등 신공항과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다하겠다.

구미 인구는 41만 정도인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대도시의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은 그만큼 못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대 차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문제이다.

쇼핑, 문화 이와 같은 편의시설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데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다.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인구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기업이 투자를 한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진심이 통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때까지 우리 시민들은 기존 정치인들에 익숙해져 있다.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지만 미래 선진국을 선도하는 정치인은 그래서 안 된다. 시민이 바뀌어야 하고 시민의 수준이 결국은 정치인의 수준이다. 구미가 선도했으면 좋겠다.

박익훈 기자ub0104@hanmail.net

“진심이 통하는 정치인이 되는 게 제 꿈이다”. 국민의힘 김영식(사진·64) 구미을 국회의원이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조선인 김영식 의원은 제21대 구미를 국회의원으로 국회 유일한 과학기술계·원자력연구원 출신 국회의원이며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재도전한다.

기자는 지난 7일 김영식 의원을 만나 4년간 의정활동 소회 및 오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영식 의원은 조선 국회의원이 다. 재선 의원이 꼭 돼야만 하는 이유는?

-저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남들과 다르다. 전 정부의 이념편향 정치, 무분별한 적폐청산 등을 보며 우리사회의 비정상성을 정상화하고자 하는 소명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제가 일에 광강히 욕심이 많다. 저는 과학기술인 정치인이고 과학기술 발전이 결국 사회변화를 이끌어 낸다.

저는 시대변화·흐름을 읽을 줄 안다. 인적 인프라 구축이 돼 있고 구미 발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금오공대 총장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구미 재도약, 부흥, 소멸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안주찬 시의회 의장이 강명구(구미을) 예비후보 지지선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고 같은 지역구인 안주찬 의장과는 대립각이라는 시각이다.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영식 예비후보에 대해 부정적 시각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가려고 한다. 저는 정치인들이 부패를 통해 지역사회를 망치는 걸 봤 왔다. 정치 초년생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략 공천을 받아 4년 동안 인프라 구축을 해왔다.

구미 정치는 변해야 한다. 배신 프레임은 제가 나가라고 한 적은 없다. 제가 가는 길이 그분(안

‘내 갈 길, 바른길’을 간다고 했고 저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난을 어떻게 하겠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길을 가겠다. 저는 앞만 보고 전진하는 스타일이다. 뒤는 안 돌아본다. 내 갈 길, 바른길을 가겠다.

▶현재 ‘구미을’ 지역에 거론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들과 차별화된 전략은?

-국회 조선의원이지만 학구파이다 보니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스타일이 못 된다.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구미 금오공대서 윤석열 대통령 주제 제1차 인재양성 전략회의 개최, 12년 지역 숙원사업, 한국식품연구원 경북본부 설립 현실화, 20년 농촌지역 숙원사업, 산장지구 다목적 농촌융복합 사업, 산장지구 다목적 농촌융복합 사업 유치 등 지난 4년간 의정 활동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실적이다.

저는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이라는 말 한마디에 안 되는 거 매달려 만들어 냈다.

▶일부 국회의원 출마 예비후보자들이 KTX구미역 정차 추진, KTX산단역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현 국회의원으로서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불가능은 없다. 정치라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일을 추진할 때는 시급성과 우선 순위가 있다. 시급성이 있는지 봐야 될 것이고 공약을 위한 공약과 주민의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은 절제가 돼야 한다.

▶김영식 예비후보의 공약은?

-구미를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다. KTX동구미역 신설을 추진하겠다. 동구미역은 구미에 제2도약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동구미역 주변에 신도시를 개발해야 되고 제 역구가 구미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동구미역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구미 미래가 있다.

또한 인구는 줄고 있고 지적 인프라 이 부분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글로벌, 즉 세계의 우수

문경시의회 유튜브 오픈 시민 소통·의정활동 홍보 강화

문경시의회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더욱더 활발히 하고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문경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모바일 기기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최근 모든 연령층이 사용하는 가장 대중적인 매체로 유명하다.

시의회는 유튜브를 통해 의회의 주요 활동사항 생중계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의정활동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재용 의장은 “제9대 문경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과 의정활동 홍보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다”라며 “이번에 개설한 문경시의회 유튜브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봉화군의의회, 군민 안전·행복 위해 잔걸음

22일까지 제262회 임시회 개최 세입세출위 선임 등 8건 상정

봉화군의의회는 14일 제262회 임시회 개최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 제·개정안 안전 처리 등 오는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24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봉화군의의회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봉화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됐다.

이날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는 올해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통해 주요 현안사항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2일은 상정안건 처리를 끝으로 제262회 봉화군의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김상희 의장은 “이번 회기는 군정의 기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 주요 사업들이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군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군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봉화군의의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정보산업의 핵심기술!

(주)대신측량기술이 이끌어 갑니다!




(주)대신측량기술
DAESHIN SURVEY ENGINEERING CO., LTD

본사 경북 포항시북구 중흥로267번길 16
TEL : (054)283-4870~1
FAX : (054)283-9915

경주지사 경북 경주시 태종로 685번길 31 2층
TEL : (054)624-2225
FAX : (054)771-2251

지적사업본부 본부장
오연진
HP : 010-3528-1335
E-mail : yunjin1335@naver.com

- ◆산업단지 확정측량
- ◆구획정리 사업지구확정측량
- ◆주택단지(아파트) 확정측량
- ◆구획정리 사업지구 분할 및 경계복원 측량
- ◆골프장 현황 측량 및 확정 측량



www.dssurvey.net

고금리 위기 소상공인에 손 내민 NH농협은행

경북신보에 60억원 특별출연 금융 취약계층 지원 상생협력 서민경제 안정 사회적 '책임'

경북도는 고금리·고불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금융기관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14일 도청 접견실에서 최진수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으로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60억원 특별출연금 증서를 전달받고 경북 소상공인을 위해 큰 힘을 보태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올해에도 농협은행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금리 극복 대책에 동참하는 의미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60억원을 특별출연했으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의 협약에 따라 임의출연금 22억원을 추가할 예정으로 총출연 규모는 82억원에 이른다.

특별출연금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00억원(출연 재원의 15배수)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재원으로 사용되며 경북비팀금융 이차보전사업과 결합 시 연간 2%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최진수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은 "앞으로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역은행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위기가 닥친 어려운 순간에 손 내밀어 잡아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흔쾌히 지원에 나서준 농협은행의 상생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위기가 닥친 어려운 순간에 손 내밀어 잡아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흔쾌히 지원에 나서준 농협은행의 상생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더 나은 내일 보장' 질 높은 경북 직업교육

2024 정책 안내·현장 의견 수렴

경북교육청은 14일 구미시에 있는 경북도교육청연구원에서 도내 전 직업계고 교장과 부장 교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경북도교육청 직업교육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직업교육 정책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추진에 반영하고 직업교육의 정체성과 내실화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경북교육청 직업교육은 '더 나은 내일(My work, My future)'을 보장하는 경북 직업교육'을 비전으로 32개 추진 과제로 수립됐다.

특히 올해 중점과제인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경북형 마이스터고 지정 △10차산업 미래 직업교육 과정 운영 △(가칭) 경북도교육청 미래직업교육관 설립 △경북형 평생 직업교육 모델 개발 △경북도 전국 기능

경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경북 직업교육이 제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학년도 경북 직업계고는 마이스터고 7교, 특성화고 48교로 총 55교이며 중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는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돼 오는 2025년 3월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또 올해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결과 타 시도 학생 1326명이 경북 직업계고에 지원했고 특히 해외 우수 유학생 48명이 입학해 경북 직업교육의 우수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 직업교육은 대한민국의 표준을 넘어 세계 직업교육의 표준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라며 "직업계고 고졸 취업만으로도 성공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업교육 정책추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고추 칼라병, 2월 육묘상부터 관리해야"

경북농기원 영양고추연구소 칼라병 매개충 총채벌레 주의



경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는 고추 자가육묘 농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매개충인 총채벌레와 진딧물을 조사한 결과 지난 13일부터 칼라병(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TSWV)을 옮기는 총채벌레 발생이 확인돼 고추 육묘 재배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다.

육묘상에서 칼라병 발생은 바이러스를 보독한 총채벌레 성충이 토양에서 월동 후 건조한 고추를 감염시키므로 예찰과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육묘 농가에서 발생한 총채벌레의 칼라병 바이러스 보독률은 평균 38%로 2월 하순쯤 가장 높았으며 최대 66%까지 높은 보독률을 보이는 농가도 있어 2월 육묘 재배 시 총채벌레방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독률은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충의 비율을 말하며 총채벌레는 작고 출쪽한 먼지벌이 모양을 한 날개를 가진 곤충이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작용기작이 다른 2가지 이상 전용약제(작용기작 번호 5번, 13번, 30번 등)를 번갈아 살포하고 예찰을 위해서는 육묘시설 내부에 황색끈끈이트랩을 설치해 총채벌레 발생과 피해증상(기형 잎)을 잘 살펴봐야 한다.

또 3월 이후부터 고추에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CMV), 고추모틀바이러스

(PepMoV), 잠두위조바이러스(BBWV2) 등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딧물의 발생 증가도 예상된다.

진딧물 또한 육묘장 내에서 월동한 후 유시충(날개 달린 성충) 형태로 고추묘에 날아와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작용기작이 다른 2가지 이상 전용약제(작용기작 번호 4c번, 9b번, 9d번, 23번, 29번 등)를 번갈아 살포하고 예찰을 위해 고추 세순 부위를 잘 살펴 진딧물이나 탈피각을 확인한다.

또한 총채벌레와 진딧물 모두 잡초를 통해 바이러스를 보독한 후 고추에 옮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사 결과 육묘장 내 잡초의 고추 바이러스(5종) 보독률은 평균 24%로 잡초 관리도 신경 써야 한다.

조영숙 원장은 "고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육묘기부터 매개충인 총채벌레, 진딧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중간기주인 잡초를 제거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북 AI 벤처기업, 2년간 특허출원 18건·정부 R&D 수주 74억

지역 AI산업 기반 확대 큰 기여 도 인공지능 전문기업 집중 육성

경북도와 포항테크노파크가 함께 진행한 '중소벤처기업 AI 기술 융합 Scale-up 사업'의 2년에 걸친 성과가 지역 AI산업 기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 AI 기술 융합 Scale-up 사업'은 경북도가 지난 2022년부터 지역 인공지능 기반 중소벤처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작했다.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기업 발굴과 기술개발 지원으로 도내 인공지능 전문기업 40개 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목표를 가진 사업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 2022년에는 도내 9개 사 지원으로 AI 기술 관련 특허출원 7건과 정부 R&D 과제 수주 50억원, 매출 37% 상승과 함께 21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이어 2년 차인 2023년에는 8개 사를 지원해 AI 기술 특허출원 11건, 정부 R&D 과제 수주 24억원, 매출 200% 증가와 19명의 신규 고용을 만

들어 냈다. 올해는 8건의 정부 R&D 사업에 신청해 33억원의 국비 확보에 도전한다.

지원기업인 ㈜쓰리브룩스 테라퓨틱의 경우 기존 비즈니스 모델인 '퇴행성 뇌 질환 치료제 신약 개발'에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더해 창업 1년 만에 4억원의 투자 유치와 19억원 규모의 딥테크-팁스 R&D 과제 수주 등의 성과를 냈다.

경북도와 포항TP는 지원기업들의 추진성과 공유를 위한 성과보고회를 지난해 12월 개최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영숙 도 경제산업국장은 "빠르게 변화되는 디지털 분야의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북지역의 미래핵심 산업인 인공지능 분야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3년 차를 맞는 이번 사업은 다음 달 도내 인공지능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포항테크노파크 홈페이지로 모집할 예정으로 지난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경쟁력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벼랑 끝 소나무... 경북도, 재선충병 방제 품질 높이기 '안간힘'

관련 사업장 대상 안전교육 실시

경북도는 14일 경북도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향상과 사업장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산림청, 경북도, 시

군 소나무재선충병 담당 공무원, 방제 사업장 현장대리인과 감리인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청 산림재난 긴급대응반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방제 현장 사례 중심의 품질 제고 방안을 실제 사업장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중소기업 확대 시행에 따른 산림사업장에 대한 특화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 집중관리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함께했다.

도규명 도 산림자원과장은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선충병 방제의 성패는 사업장의 방제 품질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업장의 철저한 안전준수 준수를 통해 안전사고가 없도록 관리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사용하면 할수록 다다익선 충전식 카드형 은누리상품권

앱(APP) 메인화면에서 가맹점찾기 클릭해보세요!

상품권충진, 카드등록도 완료하셨어요?
이젠 시장에서 카드만 긁으세요!

1. 검색창에 '은누리'를 입력하면 내 주변 가장 가까운 점포를 보여줍니다.
2. 지도를 보거나 '이 지역 검색하기' 누르면 가맹점을 볼 수 있어요.

은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인형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장점 규정에 따라 동원상, 인형시장, 상점가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 어디서 사용 가능하나요

현금 없이 카드 하나만 있으면 OK!

은누리상품권

- 10% 특별할인
- 전통시장 소득공제 50%
- 카드사용실적 반영

전통시장·상점가 쇼핑의 필수템! 휴대폰으로 충전하고 내 카드로 결제하는

은누리상품권 앱(APP) 이용 방법 안내

STEP 1. 회원가입

1. Play스토어 또는 APP Store에서 '은누리상품권' 앱을 설치하세요.
2. 회원가입을 위한 본인인증 진행
3. 은누리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련 동의
4. 이메일, 비밀번호, 생년, 성명, 연락처 입력 후 인증
5. 동선상 시, 사생활 정보관리 동의
6. 인증 결과 시, 사생활 정보관리 동의
7. 동선상 시, 사생활 정보관리 동의
8. 동선상 시, 사생활 정보관리 동의

STEP 2. 계좌등록 및 충전

1. 계좌등록
2. 충전금 입력
3. 계좌등록 및 충전
4. 계좌등록 및 충전
5. 계좌등록 및 충전
6. 계좌등록 및 충전
7. 계좌등록 및 충전
8. 계좌등록 및 충전

STEP 3. 카드충전

1. 충전금 입력
2. 충전금 입력
3. 충전금 입력
4. 충전금 입력
5. 충전금 입력
6. 충전금 입력
7. 충전금 입력
8. 충전금 입력

현행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 **지류형 100만원-할인율 5%, 카드형 150만원-할인율 10%** → **변경 월별 개인 할인구매한도(적용기간 2024.1.20~2024.12.31) 지류형 150만원-할인율 5%, 카드형 200만원-할인율 10%**

국힘 전 당직자가 쏘아 올린 '김정재 의원 비리'... 논란의 진실은?

“김정재, 수해 골프는 사실” 주장 전 시의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이강덕 시장 공천 저지 지지 폭로



국회의원 포항북당협 박문태 전 사무국장
과 친분이 있는 A씨가 박 전 총보통보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아들이 김정재 의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다. 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국회의원을 상대로 그러면 안 된다. 박문태 국장이 강박출신인데 갑 맞을 수도 있다”고 갑박한 내용을 먼저 밝혀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박광열 전 홍보특보는 회견문을 통해 “포항북당협 일을 하면서 지방의원을 요구한 적도 없고 급전적 이득을 취한 적도 없다. 단지 북당협의 발전을 위해 밀바닥 여론을 가감 없이 전달한 죄밖에 없다. 자신들의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대해 저를 걸림돌로 여기고 몰아내려고 했다. 급기야 포항북당협의 일정을 함께 공유하는 구글캘린더 일정방에서 저를 강퇴시켰다”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호우주의보 당시 골프 의혹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재 의원은 지난해 전국이 수해로 난리였던 지난해 7월 14일 오후 3시 33분 포항역에 도착한 후 경주 B골

프장에서 김정재는 김미현, 박문태는 박기훈이란 가명을 사용하며 4명이 야간골프를 한 것은 확인됐다”고 폭로했다. 지금까지 김정재의원실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김정재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공천 중립성 훼손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실에서 이강덕 시장 공천저지 지지가 분명 있었다. 또 이강덕 시장 총선 출마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초선 시의원들을 통해 포항의 시내버스 운영사인 코리아와이드의 지원문제를 조사시키는 등 이강덕 시장 흡집 내기를 여러 방안으로 시도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급전적 이득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취를 당했다고 했다. 지난 2016년 김 의원이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 의원실 간판을 해달라고 요청해 2500만원 상당의 시설을 해줬으며 이

건으로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오자 황급하게 부락해 허위로 증빙서를 갖추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 아직까지 그 비용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홍보특보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이영옥 관련 압수수색 후 변호사 선임비 2500만원을 마련해 보냈고 2022년 지방선거 중 2500만원을 만들어 달라고 해 양덕동 모 스크린골프장 주차장에서 전달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김정재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으로 문제가 됐던 이영옥 전 시의원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정재의원실 후원회에서 모금한 5000만원이 현금으로 박문태 전 사무국장에게 건넸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12월 15일에 김정재의원실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돈 100만원을 입금하고는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했다.

이와 유사한 영터리 사례가 수도 없

이 많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포항북당협에서 박문태 전 사무국장의 전횡과 김정재 의원의 묵인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혔다.

박광열 전 홍보특보는 “김정재 의원과 박문태 전 사무국장이 포항북당협 사무실이나 승용차 안에서 고성을 지르며 자주 다투고 다시 화해하는 장면들을 수없이 봐왔다.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조직관계라 생각했다”라며 “이러한 파렴치한 인간을 또 국회로 보내야 하나.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김정재 의원과 박문태 전 사무국장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이들의 부도덕함을 단죄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항북당협 관계자는 “통장내역, 사진 등 증거와 실체도 없는 무분별한 기자회견에 일체 응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기자hshin98@naver.com

경북소방, 설 연휴 화재 출동 2673건 ‘전년비 46.3%↓’

특별경계 근무 등 예방대책 효과 인명·재산상 피해는 소폭 증가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 11건(약 38%), 전기적 요인 5건(약 17.2%), 기계적 요인 4건(약 13.8%), 기타 9건(약 31%)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건수는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4명에서 5명으로 1명 증가했고 재산 피해는 2억2430만원에서 2억2740만원으로 310만원이 늘었다.

구조출동은 지난해 472건에서 올해 453건으로 약 4% 감소했고 구급출동은 2108건에서 2191건으로 약 3.96% 증가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처치, 병의원 안내 등의 응급의료 상담을 총 2005건을 실시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와 관련된 도민들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영주췌, 길 잃은 세 살배기 부모 품에 인계 연휴 첫날 “길 잃은 아이 있다” 신고... 탐문 끝에 보호자 찾아

‘할미님’ 이 떴다... 세계 외신도 주목한 평균 85세 ‘칠곡할매레퍼’

로이터 통신 등 취재 열기 ‘활활’ 수니와 칠곡주 기사·영상 공개 전 세계 언론사·방송사에 소개

인터뷰와 함께 지면면 신4리에 사는 평균 연령 85세 할머니로 구성된 ‘수니와 칠곡주’ 관련 기사와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1851년에 창간된 로이터 통신은 AP, AFP와 함께 세계 3대 국제 뉴스통신사로 뽑힌다. 150개국 230개 도시에 지국이 있으며 19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제공한 기사와 영상을 통해 칠곡할매레퍼가 전 세계 언론사와 방송사에서 소개된다. 로이터 통신에 이어 다른 주요 외신도 수니와 칠곡주 등 칠곡할매레퍼 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칠곡군에는 8인조 수니와 칠곡주와 보람할매연극단을 비롯해 ‘우리는 청춘이다’, ‘어깨동무’ 등의 할매 레퍼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 15인조로 구성된 ‘뿔뿔 왕언니’도 다음달로 예정된 창단식과 축하 공연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재욱 대안노인회장은 칠곡할매레퍼를 ‘K-할매’라고 부르며 칠곡군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고령층을 대상으로 칠곡군 할머니들의 레퍼 활동 확산에 나섰다.

관장원 대구가톨릭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로이터와 같은 세계적인 통신사가 한국 할머니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의미가 크다”라며 “세계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K-POP처럼 칠곡군 할머니들이 K-할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욱 군수는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취지역사회가 긍정적인 관점에서 고령화 현상을 받아들이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할매레퍼 활동을 시작했다”며 “앞으로 고령층 문화를 선도하며 지역 성장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홍달기자sona081700@naver.com

설 연휴 첫날 영하 3도의 추운 날씨에 거리를 헤매던 어린아이(3·여)가 경찰의 보살핌 덕분에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30경 영주시 휴전동에서 “어린아이 혼자 도로에 걸터 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을 수색했으나 보호자를 발견할 수 없어 아이를 동부지구대로 데려와 이름을 물었지만 너무 어린 탓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아이의 사진을 촬영해 인근 상가 업주들을 대상으로 탐문을 실시하던 중 다행히 인근 주민이 아이의 부

모를 알고 있어 연락이 닿았다. 아이의 소식을 접한 삼촌 오모씨(32·남)는 한 달음에 동부지구대를 찾아와 연신 감사의 인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지에 불임을 보러 나간 부모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던 삼촌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아이가 혼자 나오면서 길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보호자에게 인계한 안재민 동부지구대 순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자칫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부모님의 품에 안전하게 안겨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윤여상기자bk01410@naver.com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제070604-중-326호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맥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노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관광1번지 경주, 설 연휴에 39만명이 즐겼다

지난해 설 연휴보다 55.4% 증가
황리단길, 전체 대비 61.2% 차지
다양한 행사·주차장 무료개방 등
방문객 이용 편의 제공 노력 한몫

경주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4 일간의 설 연휴 기간 동안 38만8157명 이 경주를 다녀갔다고 밝혔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황리단길 23 만7786명 △대릉원 3만5511명 △봉황 대 1만2017명 △첨성대 2만5915명 △불 국사 7만6928명 등으로 1일 평균 9만 7000여명이 경주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 됐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2023년 1월 21 일~24일) 동일 관광지 방문객 수 24만 9795명을 비교하면 55.4%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황리단길은 이번 연휴 기간 동 안 전체 방문객의 61.2%를 차지할 만 큼 경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 가 됐다.

이는 지역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꼽 히는 황리단길을 비롯해 인근에 대릉 원, 첨성대, 동궁과월지, 교촌마을 등 의 대표 문화관광 명소 매력에 관광객 들의 발길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또 연휴 기간 다양한 문화행사도 이



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동궁원에서는 이틀간 대금산조공연 과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등의 민속 놀이 체험을 제공했다. 보문관광단지 호반광장에서는 '복(福)작 복(福)작 보문관광단지' 행사를 열어 풍기타, 트로트, 국악 등 흥겨운 공연을 선보였 다. 경주엑스포공원에서는 경품 이벤 트, 마술 및 댄스 등의 버스킹 공연, 민

속놀이 체험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국 립경주박물관에서는 '두근두근! 새해 신라왕' 이벤트를 준비해 전시실 연계 체험, 행운카드 만들기, 인생네컷, 민 속놀이 체험 행사를 펼쳐 특별한 추억 을 선물했다. 더불어 연휴기간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하고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한시주 차를 허용해 방문객들이 중심상가와

전통시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을 방문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제 경주는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앞두고 있다"며 "향후 국내 관광1번지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 록 APEC 정상회의 유치는 물론 '경주 로ON', '사계절 축제' 등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경주, 지방소멸대응 사업 발굴 '고군분투'

인구정책 실무추진 T/F 회의서
주요 시책 분석·해결책 마련 '힘'

경주시는 14일 시청 앞천홀에서 인 구정책 실무추진 T/F팀 회의를 개최하 는 등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다. 인구정책 실무추 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27개 부서, 45명의 팀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통해 현재 지역 인구현 황 분석과 출생·육아, 돌봄·교육, 다자

자·다문화가정, 고령노후, 청년정책 인구 유입 등의 5개 분야 56개 과제의 주요 시정 인구정책을 안내했다. 이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 사업 발 굴에 서로 머리를 맞댔다. 회의에서는 숲속야영장 조성, 화랑마을 미디어 어 드벤처 파크조성, 청소년활동 공간개

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논의됐다.

시는 청년층의 정착 여건 마련과 국 가-지자체, 지자체 간 연계 사업 발굴 등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계획서를 작성 해 오는 10월 사업을 확정 지을 예정이 다. 또한 저출생 위기 극복 관련 특수시 책 발굴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감소와 지방소 멸의 위기를 공감하며 결혼·청년 정착 지원,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 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김성학 부시장은 "인구문제는 지자 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합 께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며 "오늘 실무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들 은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최적의 정 책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1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 유치 성공

연말까지 5차례 걸쳐 300명 선발

지난해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집중하고 있 는 경주시가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 자 제도를 지속한다. 경주시는 올해 1 차로 캄보디아인 124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보다 효율적 인 제도 운영을 위해 올해 첫 입국자 124명 중 44명은 지난해 계절근로자로 참여한 외국인 가운데 성실근로자로 선발했다. 이들 44명은 5개월간의 체류 자격이 부여됐고 나머지 80명은 신규 계절근로자로 90일간의 체류자격이 부 여됐다. 올해 첫 외국인 계절근로자 124명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에 이틀에 걸쳐 입국했다. 이후 범죄예방과 이탈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등의 절차를 거 쳐 지역 61곳의 농가에 배치됐다.

이들은 체류기간에 따라 각각 오는 4 월 26일까지와 6월 24일까지 지역에 거주하며 토마토, 딸기, 멜론, 부추 등 비 날하우스 농가 등 영농현장에서 근무 하게 된다.

경주시는 이번 1차 외국인 계절근로 자 프로그램을 포함해 오는 11월까지 5 차례에 걸쳐 캄보디아인 300여명을 유 치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 로 인한 농가부담을 덜기 위해 △외국 인등록 수수료 △마약 검사비 △산재 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인 정착과 농가 고용주와 근로자 간 애 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캄보디아 이 주여성 3명으로 구성된 통역을 순환 배 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숙박 인프라 합격점"... 시, 2025 APEC 유치 '전력 질주'

경주시-범시민추진위 간담회
정부 공모절차 대응 방안 점검

경주시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성 공을 위해 지난 13일 범시민추진위원 회와 정보교류를 통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시는 '2025 APEC 경주 유치 범시민추진위 원회'와 곧 있을 정부 공모절차 대응 방안과 유치 여건 및 주요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주낙영 시장과 박 몽룡 위원장,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장, 조철제 경주문화원장, 이동건 경 주시이·통장연합회장, 손지의 경주시 새마을회장, 여준기 경주시체육회장, 정재운 경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사 장 등 범시민추진위원회 분과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만간 외교부에서



개최도시 선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치신청서 작성을 비 롯한 공모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회의 및 숙박 등 유치 여건과 함께 상반기 주 요 추진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 했다.

박몽룡 위원장은 "지난해 시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100만 서명운동에 동

참해 불과 85일 만에 146만명이 넘는 놀 라운 성과를 보였다"며 "전 국민적 유 치 의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공모절차 에 철저히 준비하고 숙박 인프라를 비 롯한 유치 여건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우리 경주가 보 유한 숙박현황은 총 1846개소 1만6838

실로 특히 정상회의가 열릴 보문단지 반경 3km 내 103개소 4463실이 집적하 고 있어 지난 2005년 부산 APEC 정상 회의의 당시 정부대표단 수요 대비 157% 에 해당하는 충분한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정부 공모절차가 발표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범시민추진위원 회에서도 각 소속 단체가 주도적으로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해 낼 것 이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시민의 확고 한 유치 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끝까 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비롯 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대정부 유치활동과 전국적인 유치 공감대 확 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의식 선진화 및 손님맞이 캠페인을 통해 개 최도시에 걸맞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문화 정착의 전 환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화랑마을, 지역 학교장 초청 팸투어 운영

경주 화랑마을은 이용객 유치와 흥 보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중·고등학교 장을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지난 13일 화랑마을에서 진행된 팸 투어에는 지역 내 40여명의 학교장과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장학사 등 이 참석했다.이날 팸투어는 화랑마을 총장의 화랑마을 소개와 홍보영상 상 영, 지역 내 중·고등 학교장들의 내부 회의를 거쳐 화랑마을 전체 시설 견학 으로 진행됐다.

팸투어에 참석한 신봉자 화랑중학교

교장은 "최신화된 시설에서 오는 쾌적 함과 곳곳에 스며있는 호연지기를 품 은 웅장함이 공존하는 화랑마을은 경 주 최고의 시설인 만큼 이용을 적극 검 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숙 총장은 "지금 화랑마을은 제 2의 도약을 위해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앞으 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화랑마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박삼진기자wba112@daum.net



어린이보호구역
SCHOOL ZONE

어린이 보호

주정차금지

역사를 품은 도시
미래를 앞서는 경주

2021년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

1분만 정차해도 과태료 12만원(승용차 기준)

경상투데이는 불법주정차 없는 안전도시 경주 만들기에 동참합니다

‘달성 시 복지상담’ 대구 유일 시범사업 선정

빅데이터 활용 초기상담 실시 신속·정확 민원대응 성과 기대 24시 돌보미 등 지원체계 강화

달성군은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인공지능(AI) 활용 복지위기가구 발굴 초기상담 구축 시범사업’에 대구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초기상담’은 집중 발굴 대상 중 △계절형 실업 △휴·폐업으로 인한 경제적 취약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공공요금 및 건강보험료 체납 등 취약계층 관련 빅

데이터에 기반한 고위험가구에 대해 AI를 활용한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복지욕구 및 가정내 문제상황, 건강 및 경제적 어려움을 먼저 파악 후 상담정보를 기반으로 읍·면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팀에서 심층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또한 AI 초기상담 시범사업에서 발생하는 기능오류 및 개선사항과 더불어 상담 시나리오와 업무절차의 고도화 등 기능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며 시범사업 후 주민의견 수렴, 현장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AI 기술을 활용한 전화 기반 대화 시스템(아웃바운드 콜)’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 후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복지기동대, 희망가족돌봄지원 등 공적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재단 등 민간 서비스 연계, 후원 물품 지원과 함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험단계별 문제상황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 ‘행복나눔 안부분기사업’, ‘온기한끼 지원사업’, ‘스마트 돌봄플러그 지원사업’, ‘AI 자동 안부전화’, AI스피커를 활용한 ‘24시간 AI돌보미사업’ 등 특화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를 강화해 촘촘한 복

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재훈 군수는 “인공지능 초기상담 등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서비스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AI를 공공 분야에 선도적으로 폭넓게 도입해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AI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달성군의 ‘복지 사각지대 AI 초기상담 시범사업’ 선정 사유로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가 높고 읍·면별 복지 사각지대 발굴건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점을 꼽으며 현재 전국 10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위라벨 대구 실현할 ‘청년기자단’ 12기 모집

지역 거주·제작·재학 30세 이하 일·생활 균형 정책 지원활동 수행

대구는 청년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청년 정착 위라벨 도시 대구’를 실현하기 위해 16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위라벨 청년기자단’ 12기를 모집한다.

위라벨 청년기자단은 대구시에 거주 또는 재직·재학 중인 30세 이하의 청년 중 청년이 정착하는 ‘위라벨 도시 대구’를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기를 시작으로 해마다 10명 안팎의 인원을 선정해 활동을 이어오며 지역의 위라벨 경영 기업의 현장 취재를 통해 모범기업을 발굴하고 제창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지역에 정착하는 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고 있다.

청년기자단의 역할은 가족친화경영 기업, 지역 위라벨 이슈 등을 취재한 후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대구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내)가 발간하는 일·생활 균형 매거진 ‘BALANCE(밸런스)’와 소셜미디어(SNS)에 다양한 사례를 홍보해 위라벨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는 위라벨 청년기자단 운영을 포함한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 인재 유출 방지와 저출생 회복,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의 일·생활 균형 사례를 홍보해 위라벨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10위에서 경종 뛰어오



른 성격으로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일·생활 균형 정책 성과를 통해 시민 인식이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위라벨 청년 기자에게는 위촉장과 기자증 지급,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언론 기자의 교육·지도, 현장 취재 활동비 및 자원봉사 실적 인증을 해주는 한편 우수 기자에게는 시장과 기관장 상장 수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dwfc.or.kr) ‘공직사항’과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SN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는 웹포스터의 QR 코드를 통해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 시민공감팀(053-210-5693)으로 문의하면 된다.

송기찬 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위라벨 청년기자단의 활동을 통해서 일·생활 균형 문화가 확산돼 청년이 정착하고 출생률이 회복되며 기업이 증가하는 위라벨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청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군위군,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 방문지도... 안전수칙 당부

이찬군 부준수 중심 점검반 편성 설치 적합성·소화기 비치 등 점검

군위군은 지난 13일 지역 내 화목보일러 설치 주택을 대상으로 겨울철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한 방문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화목보일러는 자동 온도조절장치가 없는 수동식 제품인 경우가 많아 과열될 위험성이 있고 많은 불티 발생으로 인해 재처리 시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잦다. 또 사용자가 편의를 위해 보일러 가까운 곳에 빨감을 보관하면 화재로 번질 위험이 높다.

설 연휴 기간 2건의 화재가 발생해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만큼 이찬군 부군수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목보일러 설치장소 적합성, 지정된 연료 사용 여부, 연



통 설치 상태 및 소화기 비치 유무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화목보일러 사용 시 안전 수칙을 당부했다.

화목보일러 사용 시 주요 안전수칙에는 △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 △인근에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만 사용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나무 연료 투입 후 투입구 꼭 닫기 △3개월에 한 번 연통 청소 △연로 한꺼번에 넣지 않기 △젓은 나무 사용 시 투입구 내부 3-4일에 한 번 청소 등이 있다.

김진일 군수는 “가연성 물건은 보일러 근처에 두지 말고 연통 청소는 수시로 하는 등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숙지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화목한 일상을 지켜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대구, 어르신 낙상사고 막는 ‘근력·균형운동’ 함께 배워요

‘노(老)!노(NO)!필라’ 운동 추진 근감소증 예방 영상·포스터 보급

대구시는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3월부터 보건소 및 유관 기관과 연계하고 근력강화운동 프로그램을 어르신 가정과 이용시설에 전격 보급할 계획이다.

‘노(老)!노(NO)!필라’는 ‘늙지 말고 인생을 활짝 펼쳐라’라는 뜻으로 대

구시가 지난해 9월 자체 개발한 어르신 대상 밸런스 운동 프로그램이다.

대구시는 전문가 자문, 65세 이상 시민의 근력, 낙상위험 등 3개월간 효과성 검증을 거쳐 근력 및 균형감각 감소로 인한 낙상 예방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운동 프로그램은 △(1단계)국소 코어강화 운동 △(2단계)하지 근력 및 균형감각 향상 운동 △(3단계)기능적 건기 능력 향상 운동 등 난이도별 3단계

총 15개 동작으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 가능한 체계적인 구성과 자기 체중을 이용한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동작들로 구성돼 있다.

구·군 보건소와 노인복지시설 등 어르신 이용시설에 운동 영상과 포스터를 제작 배부하고 체육회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확대로 근력 및 균형감각 향상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갈 계획이다.

운동 프로그램은 유튜브 채널 시민건강놀이터(www.youtube.com/@dghealth)에 업로드돼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민건강놀이터 콜센터(1688-299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연숙 시 건강증진과장은 “어르신 근감소 예방을 위해 관철에 무리가 없고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해 어르신 건강관리에도움이 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진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대구시체육회, 민선2기 제5차 이사회 개최

사업계획·예산·정관 개정 등 5건의 안전 최종 심의·의결

대구시체육회(회장 박영기)는 14일 호텔인터불고대구에서 3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2기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결산,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참가계획 등 7건의 보고사항과 정관 개정, 올해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회원종목단체 가입 승인 및 준회원 승격 등 5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올 한 해 대구시체육회 사업방향은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 체육으로

행복한 대구’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전문체육 지원 강화를 통한 스포츠도시로의 도약, 시민과 함께 즐기는 스포츠 확대, 체육기반 및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이사회를 통해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등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대구시티볼협회 등 준회원단체로 승격시키고 대구시जू짓수회와 대구시브리지협회의 인정단체 가입을 승인한 결과 대구시체육회는 74개 회원종목단체(정회원 54개, 준회원 11개, 인정단체 9개)와 9개 회원구·군체육회를 포함해 총 83개의 회원단체를 산하에 두게 됐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안동시설공, 신뢰 기반한 경영 정상화 '속도'

쇄신방안·운영방법 개선 '총력' 행정사무조사 문제점 조치 추진 4월까지 공식 임원 모집 마무리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경영쇄신방안 수립과 운영방법 개선 등 자체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 회복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먼저 지난해 발생한 경영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안동시에서 경영전문기관에 시설관리공단 경영 효율화 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에는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방안,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문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비상경영체제에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추가사업 수탁에도 불구하고 조직진단을 통해 정원을 20명 감축했고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초과근무와 출장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노력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사업별 효율화 방안과 근무형태 개선,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 경영쇄신방안을 수립 후 추진 중이다.

사업별 운영시간 및 요금 조정, 무인시스템 도입으로 인력 5명 감축 및 경영수익 20% 증가를 목표로 하고 휴무일 변경 및 탄력근무 추진 등을 통해 운영비용도 연간 4억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해 안동시의회 의원, 자치단체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자문위원회를 2월 중 구성해 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설별로는 도청 신도시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이 시범운영과 시설개선을 마치고 이달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도청 신도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상주차장은 유료 운영시간을 1시간 축소하고 중앙신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쿠폰 제공을 통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등 이전보다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소년수련원은 비수기인 동계기간 동안 서울 효계초 등 유소년 야구부의 전지훈련 숙소로 활용해 시민들과 야구 관계자들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야구장 2면이 완공되면 야구 전지훈련장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은 비상경영체제를 종료하고 경영 정상화의 마중표를

찍기 위해 장기간 공식인 임원 모집 절차에 들어갔으며 모집 절차가 완료되고 새로운 임원이 임명되는 오는 4월에는 경영 정상화 추진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경영진 구성과 함께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규정개정협의체 운영,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축과 감사기능 강화 등 다양한 경영 쇄신을 지속해 시민들에게 완전히 탈바꿈한 시설관리공단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선 이사장은 "경영쇄신방안 추진과 경영 효율화 용역 실시 등 지속적인 노력과 기본을 중시하는 조속한 경영 정상화로 하루빨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경영진이 새롭게 구성될 때까지 임직원의 단합된 마음과 분골쇄신의 정신으로 시민 복리증진과 편의 제공에 더욱 노력하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봉화 법전면, 농민수당 신청 도와드립니다

스마트폰 이용 어려운 주민 위해 '모이소' 앱 사용법 알려 큰 호응

봉화군 법전면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직접 마을회관을 찾아 경북도 농민수당 신청을 돕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전면에서는 경북도 농민수당 비대면 신청 서비스 첫날인 지난 1일부터 동·리별로 일정을 정해 산업팀 직원이 마을회관을 방문해 스마트폰 앱 '모이소'를 통한 농민수당 신청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앱 설치 등 스마트폰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에게 정성을 다해 신청해 줘 감동을 주는 행정에 주민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경철 이장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께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니 주민분들도 만족감이 매우 높다"라고 전했다.

김경숙 면장은 "농민수당을 통해 주민들의 이마에 주름을 조금이나마 펴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정형영 기자jh4430@hanmail.net

"지방소멸 위기 극복"... 영주형 기회발전특구 전략 마련 '박차'

특구 지정 신청 전 착수보고회 현황·기업 수요예측 등 분석

영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영주시 기회발전특구 기본계획 및 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정책 중 하나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이날 보고회는 송호준 부시장, 심재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베어링아트, SK스페셜티㈜, 영주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기본계획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2024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이번 용역에서 △특구 지정에 위한 영주시 현황 및 산업 분석 △영주형 기회발전특구 전략 수립 △특구 내 기업 수요예측 및 영향 요인 조

사 △영주시 특화형 지원 및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수행한다.

송호준 부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면서 "상대적

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주형 기회발전특구 전략을 신속히 마련해 특구 지정에 자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

예천군,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 나서

42개 마을 대상 직접 찾아 접수 지역별 최대 6만원까지 차등지급

예천군은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소음대책지역은 예천읍, 호명읍,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일부 지역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는 우편발송 안내 및 군용비행장 소음 지역 조회시스템(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관리과는 교통편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신청자들을 위해

총 42개 마을 51개소 마을회관과 경로당으로 날짜를 지정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상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000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직장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30~100%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심의 후 5월 말 확정,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학동 군수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올해를 '교통 영양'의 원년으로 삼을 것

군, 31번 국도 선형개량 10억 확보

영양군은 31번 국도 선형개량사업 초기 착공비 10억원을 확보하며 올해를 교통 영양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군은 열악한 지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군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국

도 31호선 선형개량사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입암~영양 구간, 상습 낙석구간, 도로 침수 구간 5.43km 선형개량사업(5년간 총사업비 920억원)의 초기 착공비 1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 과정에서 지역 80여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영양군민 통곡위원회'를 만

들어 군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민과 관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는 모범사례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군은 영양 진입 구간 터널화와 영양읍 관문도로 4차선 개설사업 등 내부 교통망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남북 9속 고속도로' 개통을 위해 관계 시·군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영양군을 통하는 혈관인 도로 상황이 개선되면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 접

근성 증대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의료공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도창 군수는 "올해를 교통 영양의 원년으로 삼아 사통팔달의 교통로 개선에 중점을 두고 변화와 함께 군민의 생활 편의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개혁으로 향후 최고로 빛나는 한 해가 되도록 저를 포함한 500여명의 공직자가 힘을 내겠다"라고 전했다.

김경태 기자tae66811@naver.com

의성청소년문화의집, 교육 기회 제공 '힘'

배움터교육지원사업 공모 선정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은 (재)삼성공작학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배움터교육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움터교육지원사업은 지역·사회경제적 교육자원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 제공 및 협력과 나눔, 배움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성군에서는 청소년들이 자기주

도적으로 기획·진행하는 소그룹 맞춤형 프로젝트 '상상공작소: 꿈과 미래를 디자인하다'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청소년 자기주도 프로젝트 '상상공작소: 꿈과 미래를 디자인하다'는 2023 아이원협정대의 연장선으로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미래의 꿈을 좀 더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기획 및 디자인, 제작, 운용까지 추진하는 것이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도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술작전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결집된 유치 의지

법시인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상주시
SANGJU CITY

구미시, 복지 빈틈 없게 '여성·가족·보육' 짝

3회 연속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안전한 환경 조성 최선 가족 유형별 서비스·부모급여·교사 처우 개선 지원 등 '앞장'

구미시가 여성·가족·보육 분야의 복지 지원을 위해 만전을 기한다. 시는 △합계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세부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여성이 열여가는 양성평등 행복도시 구미'를 비전으로 지난 2013년, 2018년에 이어 2023년에도 3회 연속으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14일 시청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시는 그동안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은 29.5%로 경북 목표(14.6%)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산업단지가 많은 구미시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과 취업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해마다 교육생 20여명

을 배출하고 이 중 67% 이상을 취·창업으로 연계했다.

여성친화 우리동네 강사를 양성해 지역 곳곳에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힘썼다.

올해는 범죄 예방 진단을 통한 여성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로고젝터, 솔라표지병,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현장 출동 지원 등 경찰서, 민간기관과 연계해 여성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도어카메라, SOS 비상 버튼 등 가정용 보안기기를 지원하는 우리집 경호원 파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범죄예방과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이 제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구미를

전개한다.

가족 형태 다양화로 1인 가구,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 유형별,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시는 가족 서비스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미시 가족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의 가족서비스는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청소년한부모 등 가족 형태별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온 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상담 등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먼저 파악하고 가족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한다.

가족 누구나 구미시 가족센터에 방문해 1인 가구 긴급돌봄·병원동행,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 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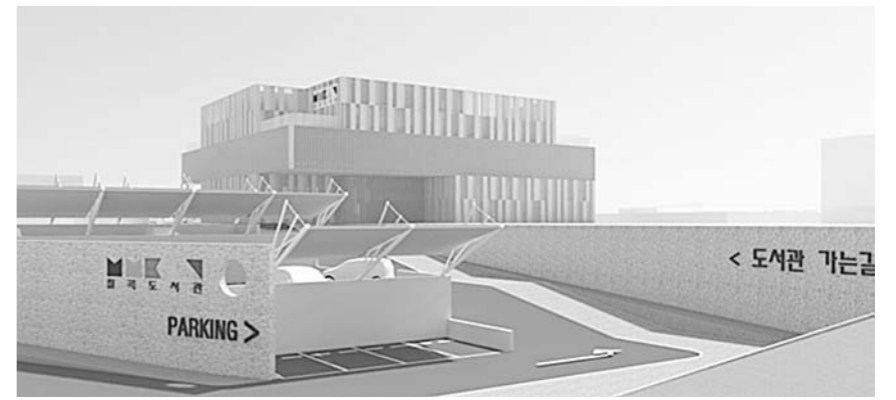
구미시는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원 외국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정원 미달 0-2세 영아반에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는 영아반 인센티브제도를 신설·지원한다.

또한 보육 교직원 근무 수당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 지원해 교사의 처우개선으로 질 높은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도 대폭 확대,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12-23개월 아동에 월 50만원을 지원해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부모 부담을 덜어준다.

김장호 시장은 "올해는 도내 영유아 수 1위 도시에 걸맞은 육아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향상, 폭넓은 보육정책 추진, 맞춤형 가족 서비스 제공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고 여성·가족·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박익문기자ub0104@hanmail.net



노후 칠곡도서관, 활기 넘치는 곳으로 변신

경북도교육재정심사 최종 승인 186억 투입, 2027년 3월 개관 목표 가족·청소년 등 통합 체합 마련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5일 경북도교육재정투자심사에서 '경북도교육청 칠곡도서관의 신축 사업'을 최종 승인 가족·청소년 등 통합 체합 마련

칠곡도서관은 지난 1959년 건립해 64년 경과한 오래된 건물이다. 건립 당시 칠곡교육청으로 사용하다가 1985년 공공도서관으로 용도 변경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시설의 노후화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독서 및 문화 활동의 어려움과 좁은 진입로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 많은 민원이 있었다.

해당 사업의 위치는 칠곡의 행정, 교통, 교육의 중심지로 도서관의 접근성을 고려해 현 부지에 신축하게 되고 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부지 4777㎡ 연면적 3200㎡)으로 오는 2027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보상을 마치고 설계 공모 준비 중이다. 총사업비는 186억원으로 경북도 교육비특별회계 156억원과 칠곡군 보조금 30억원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이를 위해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신축 도서관은 정보 이용 공간의 통합 및 개방화를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기획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주말을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도서관, 청소년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 사회통합·세대 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따뜻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변모 될 것이다.

특히 청소년 특화 공간으로 인공지능(AD), AR, VR, MR 등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고 체험·교육·활용을 통해 새로운 직업 체험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기획하고 있다.

송홍달 기자song031700@naver.com

김천시, 탄소 먹는 '숲' 만든다... 40만평에 30만본 식재

보조 조림사업 7억8500만원 투입 경제수 95ha, 큰 나무 38ha 조림

김천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흡수 유지 증진을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한다.

조림 사업은 크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 조림 사업과 산주 자력에 의해

심는 자력 조림이 있다.

보조 조림 사업은 임야를 소유한 산주가 목재수확 시기에 도달한 나무를 수확 벌채하고 산림청에서 지정된 목재생산용 묘목으로 수종 경신을 희망하는 산주에게 시가 나무를 심어주는 사업이다. 이 경우 산주는 조림비용의 10%를 내면 된다.

시는 7억8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33

ha의 산림 면적에 낙엽송, 자작나무, 편백, 백합나무, 산벚나무 등 총 30만본을 심을 계획이다.

양질의 목재생산과 국산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수 조림 95ha, 산사태, 산불 등 산림 재해 방지를 위한 큰 나무 조림 38ha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봉산면 일원에 풀 채취가 쉬운 산벚나무를 심어 양봉 농가의 꿀

채취를 돕고 경관적으로도 화려한 숲 조성으로 MTB 산악자전거 코스와도 연계한 주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예년에 비해 따뜻한 기후에 조기 조림을 시행하고 한 그루의 나무도 고사하지 않고 활착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심을 계획이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고령 '청년인구 유출 막자' 맞춤 일자리·창업지원센터 운영

고령군은 최근 경북도 시·군 특화 맞춤형 일자리 공모 사업에서 '고령군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이 2년 연속 최종 선정돼 올해도 운영비도비 4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는 일자리와 청년 창업을 연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주민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정보 제공, 체계적인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구축 등 일자리 업무와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 지원 기반 확충의 전진기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도 공모사업에 처음 선정돼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한



이래 일자리 매칭 지원, 취업컨설팅, 구인·구직 만남의 날, 일자리 협력망회의 등을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허브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청년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예비 청년창

업가 육성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기여했으며 올해는 가정간접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밀키트를 활용한 창업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청년층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기대되고 있다.

이남철 군수는 "일자리·청년창업지원센터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호 기자hoyai1515@daum.net

성주가족센터,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시행

성주군가족센터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1대 1로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해당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하원 도움과 준비물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며 맞춤형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성주군에서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3인 가구 월 332만7000원)는 이용 대금을 전액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김일호 기자hoyai1515@daum.net

따뜻한 나눔 '신흥동 지보험 소식' 한눈에~

상주시 신흥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한 해 신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을 소개하는 소식지를 발간했다.

"따뜻한 나눔, 행복한 이웃"의 슬로건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2021년 제1호를 시작으로 해마다 다양한 복지 소식을 담아 후원자들에 전달하고 후원자에게는 복지사업에 일조한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주민에

게는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지역 내 기부문화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올해 발간된 아름다운 동행 4호는 협의체 운영 현황, '이것이 복지Day' 지역특화사업 추진성과, 후원단체 및 후원자 기부내역, 착한나눔가게 소개를 담고 있으며 감사 서한문과 함께 70여 개 후원단체 및 후원자에게 전달됐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대구경북교육신문
대표 백재욱

경주시 초당길 5번길 3 (동천동, 2층)
☎ 010-7755-2933

(주)세영클린텍
대표 양창권

경주시 천북면 천강로 90
☎ 010-3539-9395

경상투데이
광고 문의

대표전화
☎054-748-0070

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

더 특별한 여행 즐기려면... '가자, 울진으로'

군, 맞춤형 마케팅·이벤트 선배 코스별 관광지 탐방 기회 제공 단체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스탬프투어 통해 특산물 선물 1천만 관광객 시대 개막 '박차'

울진군은 2024년을 맞아 더 즐겁고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이벤트를 다양하게 준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첫 번째는 울진사랑 GO BACK(울진 애고백) 이벤트로 울진군 관광안내책자를 사전 신청한 관광객이 울진군을 관광한 후 설문지 및 울진지역 내에서

쓴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용한 금액의 구간별로 10% 상당의 울진의 특산품을 보내주는 이벤트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울진 특산품과 연계한 상품을 구성해 특산품의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특산품의 재구매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가 관광객을 울진군에 유치해 관광지를 방문하고 울진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체관광객 20인 이상을 모객해 지역 내 식당 1개소, 유료관광지 2개소를

방문해야 하며 1박 시 1인당 1만원, 2박 이상 시 1인당 2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이달부터 시행 중이며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는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마지막은 울진여행 스탬프투어 이벤트다. 울진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스탬프를 찍으며 코스를 완주하면 울진군의 산양캐릭터(사니, 야니) 인형 혹은 울진 특산품인 자연산 돌미역을 받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는 사니코스(A코스), 야니코스(B코스) 2코스로 나뉘며 사니코스는 죽변해안스카이라일, 성류굴, 민물고기생태체험관, 매화만화거리이고 야니코스는 왕피천계이불까, 울진

아쿠아리움, 국립해양과학관, 봉평리 신라비전시관으로 이뤄져 있으며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 예정이다. 울진군은 다양한 관광 이벤트와 더불어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 조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울진군의 브랜드 가치를 증대하고 인지도를 향상시켜 1000만 관광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갈 계획이다. 손병복 군수는 "앞으로도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특별한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통해 울진이 차별화 명품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들이 울진의 매력을 느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주 기자ksj09102@naver.com



경산시, 사람 중심 문화·관광도시 '발돋움'

부림관광주과 위·수탁 협약 체결 민간 위탁형 시티투어 운영 추진

경산시는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을 내외국인에게 알리고 관광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경산 시티투어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 사업자로 선정된 부림관광주(대표 권순홍)과 13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 관광도시를 위한 시티투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사람 중심 문화도시로의 발돋움과 함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해 나간다는 뜻을 모았다. 다가오는 봄과 함께 시작될 경산 시

티투어 정기코스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출발하는 갯바위 일원의 소원성취투어와 넷째 주 토요일 반곡지 일원의 삼성현 명품 투어로 운영되며 이와 더불어 벚꽃길 명소투어 등 특색 있는 월별 테마 코스를 수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100여개 지자체에서 도입 운영 중인 시티투어는 짧은 시간 내에 우리 경산시가 가진 핵심 관광자원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올해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내년 자체 차량 확보 등 관광도시를 향한 전면전을 펼칠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이강덕 시장, 지속 가능한 포항 건설 '온 힘'

간부회의서 시민 체감 행정 당부 지역 관광·신산업 발전 등 '초점'

이강덕 포항시장이 지난 13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통해 핵심 현안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12만 명의 관광객이 포항의 주요 관광 명소와 도심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문객 증가에 따라 구룡포, 영일대해수욕장 등 상가 매출도 늘어 골목상권이 활기를 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이 시장은 다가오는 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더욱 많은 관광객이 포항을 방문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한층 불어넣을 수 있도록 문화 공연과 예술, 관광 특산물 판매 등을 연계한 포항만의 특색있는 관광 마케팅을 기획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지역 투자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우수기를 앞두고 선제적인 배수로·하수도 정비와 준설 등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포항 건설과 국가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국비 확보를 비롯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등도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이 시장은 교통, 안전 등 종합적인 명절 대책으로 시민과 관광객 편의와 불편 해소를 위해 힘써준 공직자들에 감사의 전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이 더욱 풍요

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업가적 마인드를 갖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혁신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신현기 기자hshin99@naver.com

청도, 1인 이상 사업체 6481개소 조사 시행

청도군은 16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지역 내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6481개를 대상으로 2024년 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체 조사는 지난 1994년 이후 해마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가 지정 통계조사다. 조사 대상은 조사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 또는 조사일 현재 청도군에

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이며 가구 내 전자상거래, 프리랜서, 간편 없는 공부방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까지도 포함된다. 조사 항목은 사업체명, 대표자,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9가지이며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는 현장 조사와 상황에 따라 전화, 인터넷, 배포조사가 병행된다. 장종길 기자jkk2929@naver.com

울릉군, 1·2차 청소년 스키캠프 진행

다양한 체험 통해 교육의 질 UP 울릉군은 지역 내 초·중학교 학생 4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스키캠프를 1·2차에 걸쳐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 스키장에서 실시한다. 1차는 이달 13일부터 16일까지 중등 1학년 20명, 2차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초등 6학년 22명이 참가한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5회에 걸쳐 진행됐던 스키캠프는 지난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올해부터 재개되며 중단돼 수혜를 받지 못했던 중등 1학년, 초등 6학년 학생들이 이번 스키캠프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진행되는 스키캠프 프로그램은 육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울릉군 청소년들에게 다



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보다 넓은 안목을 길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gst3000@naver.com

영덕,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참여 모집

영덕군은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퇴직 중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공헌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1974년생의 50세 이상부터 1959년생인 65세 미만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또는 사회복지 분야 경력 1년 이상을

조건으로 한다. 모집 인원은 총 4명이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 고독사 및 사회 고립가구 지원 활동 등 사회복지서비스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주민복지과 복지지원팀(054-730-6036)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박순환 기자shghks70@naver.com

<p>가인전력에너지 대표 김 영 철</p> <p>경주시 안강읍 북부리2길 37 ☎ 054-762-2007</p>	<p>세무법인텍스코리아 대표 김 창 호</p> <p>경주시 원화로 306(성동동 5층) ☎ 054-777-2666</p>	<p>경상투데이 광고 문의</p> <p>대표전화 ☎054-748-0070</p> <p>경주시 양정로235(동천동) 덕양빌딩 8층</p>
---	--	--

전 시민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영주' 만들자

市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인지 자극 체험 등 추진 발병 시기 늦추고 위험성 낮춰 시민 뇌 건강 지키기 '자리매김'

영주시는 연초부터 더욱 다양한 치매예방사업으로 시민들의 뇌 건강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영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치매예방교실 '두근두근 뇌운동! 뇌 맑은 청춘교실!'을 14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매주 2회(월·수요일) 운영한다.

이번 치매예방교실은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인지 강화를 위한 △두뇌 건강놀이 △치매예방체조 △레크레이션 △원예 △인지 자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또 60세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오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치매예방교실은 대상자들의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추고 발병 시

기를 늦추기 위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지 저하자 및 노년층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치매예방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올해 상반기에는 치매예방교실뿐만 아니라 인지재활(쉼터) 프로그램을, 하반기에는 치매보호마을과 연계해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을 운영해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시는 올해 치매 환자, 치매 고위험군, 환자 보호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치매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인지 자극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예방과 고립감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치매 걱정 없는 영주시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치매예방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054-639-5738)로 문의하면 된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

테니스 미래 주역, 김천시 뜨거운 한판 승부

15~29일 춘계 주니어테니스·초등테니스 전국 대회 동시 개최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시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개최에 돌입한다.

김천시는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4 김천 춘계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와 '2024 김천 전국 초등학교테니스대회'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중고테니스연맹이 주관하는 '2024 김천 춘계 전국주니어테니스대회'는 전국 중고등 선수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9일간 남녀 14세·16세·18세부로 나눠 개인 단식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서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은 한국초등테니스연맹이 주관하는 '2024 김천 전국 초등학교테니스대회'가 개최된다.

전국 유치원과 초등 선수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세쌍, 10세, 12세부로 나눠 개인 단식과 복식전으로 경기가 진행된다.

양 대회로 인해 참가 선수를 포함한

학부모, 지도자 등 약 1500명이 넘는 인원이 김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내 숙박업, 요식업 등 내수경제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현 스포츠산업과장은 "한국 테니스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의 김천시 방문을 환영하고 이번 대회를 통해 그간 갈고닦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꿈나무 선수들의 성장 동력이 되는 대회를 많이 유치해 한국 테니스 발전에 김천시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천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은 실외 코트 20면 실내 코트 4면으로 구성된 총 24면의 케미컬코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뛰어난 경기시설과 넓은 휴식 공간은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최적의 경기 환경을 제공해 각종 대회 개최와 전지훈련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이번 대회를 포함해 10개 테니스대회가 김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문경시-유도회, 靑 유·청소년 선수권대회 성공 위해 '맞손'

업무협약 체결, 다음달 조직위 구성 도시 브랜드·경제 활력 효과 기대

문경시는 1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또 다른 기적을 향해 달려가는 문경'을 지극한 4000만 유도 가족들에게 널리 알리고 유도인의 화합의 장인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한유도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신현국 시장, 조용

철 대한유도회장, 김정행 대한체육회 명예회장, 김진도 대한유도회 명예회장, 이무희 전 한국 초중고 유도연맹회장, 김태환 한국실업유도연맹회장, 백락광 대한유도회 부회장, 선찬중 대한유도회 전무이사, 옥치일 대한유도회 이사, 임득용 경북유도회장, 이춘대 문경시 유도회장 등 대한민국의 주요 유도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4 문경대회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국제대회가 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공동조직위원장은 문경시장, 대한유도회장이며 오는 3월경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아시아 유도연맹(JA)에서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40여개국 1000여명 아시아 유소년, 청소년이 참가하는 국제대회로 30세급 남·여 선수들이 오는 8월 29일~9월 1일 나흘간 문경실내체육관, 문경배드민턴장 등 문경시 일원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아낌없이 펼칠 계획이다.

또한 세계 각지 40여개국 1000여명이 참가하는 국제대회인 만큼 2024 문경 아시아 유·청소년 유도 선수권대회는 문경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현국 시장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과 관계자, 관람객이 안전하게 대회를 즐길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시니어 위한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 안녕~

안동 명륜동 주민자치강좌 인기

안동시 명륜동 주민자치회는 시대변화를 수용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다양화·차별화·퓨전화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 중이다.

기존 헬스, 요가, 라인댄스, 필라테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령층(특히 노년 남성)이 주민자치센터 이용에 소외되고 있어 명륜동 전체인구의 29%를 차지하는 노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명심보감'을 개설해 수강생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트로트 열풍의 시대 흐름을 반영하듯 트로트를 주종으로 하면서 사물놀이로 대표되는 장구와는 모양이 다르며 생동감과 신명이 넘치는 '고고

장구'를 신설해 주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정숙이 자치회장은 "시대변화를 수용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다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자치센터 이용 연령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인걸 동장은 "다양하고 차별화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풍요로운 여가 활용과 긍정적인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다"며 "주민들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명륜동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명수 기자homs7227@nate.com

도민행복대학 예천캠퍼스 신입생 모집

23일까지 7개 분야 40명만

예천군은 오는 23일까지 '2024년 경북도민행복대학 예천캠퍼스' 새내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올해 4기를 맞는 경북도민행복대학은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학습을 통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민의 역량을 개발해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경북도와 예천군, 경북도립대학교가 추진하는 관학 협력 평생학습 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60+마스터 과정으로 공통과정(경북학, 시민학, 미래학)과 특화과정(인문학, 사회경제, 생활환경, 문화예술) 총 7개 분야로 구성된다.

아울러 학생 자치 활동, 학습동아리, 분야별 특강,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 교육생이 주도하는 다양한 비교과 과정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40명이며 예천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경북도립 행복대학 기수료생은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경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gitle.or.kr)에서 회원가입 후 예천군 캠퍼스를 선택해 입학 신청하면 된다.

또한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봉화보건소, 치매 순회 조기검진 '호응'

봉화군보건소가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경로당 순회 치매 조기검진'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봉화군 지역 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39.1%이며 치매유병률도 13%로 전국 10.16%, 경북 11.2%보다 높다.

이에 보건소는 경로당 순회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달부터 봉화를 마을회관 및 경로당 38곳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로당 순회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예방수칙을 안내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상담 등을 병행해 치매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치매조기검진을 받은 한 어르신은 "치매는 치료가 어렵고 진행이 빨라 조기발견이 중요하다고 들었다"면서 "직접 경로당으로 찾아와서 검진을 해주니 편리하고 좋다"라고 말했다.

봉화군 관계자는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군을 발굴해 치매예방률을 높일 수 있으니 검사와 상담을 통해 치매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위영 기자 jhy4430@hanmail.net

Happy together 김천

김천호두

1위 전국생산량

맛과 영양이 풍부한 김천 명품 호두

김천시

포항시,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에 속도낸다

입주 기업 맞춤형 지원 추진키로 기반시설 확대·부지평탄화 시행 블루밸리 산단 전력 인프라 확충 이강덕 시장 “관련 규제개선으로 국내 최고의 첨단 클러스터 도약”



단 인프라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경북도와 함께 기재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을 지속 방문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과 규제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적극 건의했다.

블루밸리 국가산단에 입주하거나 예정인 이차전지 기업들이 생산공정에 발생하는 처리수를 공공해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지하관로 구축이 필요하지만 첨단특화단지 지원대상 산업기반시설에 포함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에 지하관로 구축을 요구해 왔다.

이차전지 처리수 지하관로가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특화단지에 입주할 이차전지 기업들의 생산과 입주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기업에서 발생

하는 염 폐수의 해양 직방류를 위한 염 중증 가이드라인이 함께 마련되면서 이차전지 분야의 투자 불확실성이 감소돼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하기 위한 산단계획 등 변경 절차가 진행 중으로 변경이 마무리되고 단차가 존재하는 부지에 생산공장을 착공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이 소요돼 부지평탄화 조기 시행을 건의해 왔다.

이차전지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적기를 위해 사업시행자(LH)가 부지 평탄화 공사를 먼저 시행하고 입주협약 체결 기업이 부담하게 돼 생산공장의 신속한 착공이 가능해져 국가 차원의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이차전지 소재 생산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이 필수적으로 블루밸

리 국가산단은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오는 2028년까지 약 600MW 이상의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해 전력 인프라 확충을 요청해 왔다.

오는 2025년까지 블루밸리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송전선로를 대규모 전력 공급이 가능한 전선으로 교체 및 보강하고 신포항변전소에 345kV 변압기 1대를 증설하면서 입주기업 수요에 적합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하게 돼 기업들의 투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특화단지 기업들이 마음 놓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단 인프라 확충과 규제개선을 획기적으로 이뤄 대한민국의 최고 첨단 클러스터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기자hshin98@naver.com



경산시 관문 ‘하양부호지구’ 랜드마크 스마트시티 ‘거듭’

40만8328㎡ 개발사업 ‘탄력’ 뛰어난 입지·우수 여건으로 다수 회사들 투자 본격 진행

경산시 관문인 하양을 부호리 산 41-1번지 일원(40만8328㎡)에 ‘랜드마크 스마트시티 건립’을 표방한 하양부호지구도시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조항을 시행사로 하는 환지방식 민간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 중 지구 내 토지 일부가 경산지식산업단지진입도로에 편입돼 지구경계가 확정되지 않아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제안을 못하던 중 2023년 11월 편입 면적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해 올해 4월 경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제안서를 제출 예정이다.

부호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조경구)와 부호지구도시개발사업SPC(위원장(대표이사 황순현)에 따르면 지역 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위기를 겪는 아파트개발사업과 달리 도시개발사

업은 향후 3년 뒤 공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뛰어난 입지와 우수한 사업여건으로 부호투자제1호(주)를 필두로 다수의 투자회사들이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양부호지구는 경산시 관문에 위치하고 올해 말 개통되는 지하철 1호선 연장선 부호경일대호산대역과 경산지식산업단지 진입도로(2024년 말 개통)와 접해있고 경산~남산간 국도에 진입하는 인터체인지가 지구 내 위치해 하양 일대 최고 교통요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각종 개발호재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매우 높아 개발행위제한지구로 지정관리하다가 지난 2019년 10월 해제돼 민간개발이 가능해 민간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중이다.

스마트 인프라 기반의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되면 4500세대 수용인구 9800명의 경산 북구 관문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날 전망이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o@daum.net

‘글로벌 혁신특구 유치’ 사활 건 포항, 새로운 변화 물결

市, 경북도와 新성장동력 삼아 배터리 공급망 안정 기여 구상 지역의 전기차 분야 연계 목표

포항시와 경북도가 정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나선다.

지난 8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달 추가 공모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경북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로 유치가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특구의 규모를 광역으로 확대하고 지역 기업뿐만 아니라 도와 전국의 이차전지 기업들이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이번 공모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명시적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국내 최초로 적용된다.

세계적으로 배터리 셀 제조에 재활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주요국의 공급망 분쟁으로 우리나라는 언제든 피해를 입을 수 있어 포항시와 경북도는 배터리 재활용·재사용을 통한 실증·인증·허가가 가능한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

는 구상이다.

또한 국내의 저미줄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차 및 배터리 분야 기업들에게 돌파구가 되고 실증을 통한 국제표준을 마련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주, 영천, 경산, 김천, 상주, 구미, 봉화 등 지역의 전기차 및 배터리산업 분야와 연계를 목표로 지방시대를 개척하는 성장동력으로 삼고 지역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특구 유치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면서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14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

뤄지면서 대한민국 대표 이차전지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의 연장선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유치해 전국 최초 4년 연속 우수특구로 지정된 배터리 특구의 결실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포항은 철강도시에서 이차전지 도시로 유례를 찾을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라며 “포항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현기자hshin98@naver.com



기부하고~ 혜택받고~ 고향살리고~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제

2023년 1월 1일 처음 시행하는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대구 군부대 이전 최적지는 칠곡!!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칠곡군이 아닌 칠곡군을 응원하는 누구나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 기부시스템(PC/모바일) - 고향사랑e음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대면접수(※신분증 지참)



기부혜택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내 지역특산물 제공



답례품

농특산물, 전통·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



기부 바로가기

청송교육청, 관사관리시스템 교육



청송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나이스 기반 관사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전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처음 도입된 '나이스 기반 관사관리시스템'이 정상 운영됨에 따라 관사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해 지역 내 학교 관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나이스 기반 관사관리시스템'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사 관리를 위해 경북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나이스 인사정보와 연계해 관사 입주 신청·배정 업무를 전산화하고 관사 운영자료를 현행화함으로써 관사 관리 업무 경감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경 교육장은 "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사 관리를 통해 교직원들의 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상주 내서면, 현장 이장회의 개최



상주시 내서면은 지난 13일 이장 및 기관·단체장,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취지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스마트 농업시대를 맞아 미래 농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첨단 농업시설을 견학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태경 면장은 "주민과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들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둘러보며 미래농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임찬환 기자changwan12@naver.com

"살기 좋은 영양 만들기, 조금이나마 보탬 되길"

박진규 ㈜더스카이 실장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하겠다"며 "영양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제 2년 차를 맞이해 단체 품목을 총 11종으로 늘려 기부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지난해에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취약계층 세탁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생활밀착형 공공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기부자와 군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주 소지를 제외한 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편 기부금은 사회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영양군 지역발전에 사용될 계획이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영주 봉현면 적십자봉사회, 이웃에 온정 손길

영주시 봉현면 적십자봉사회는 지난 12일 설 연휴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봉현면 하촌리 가구를 방문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회원들은 식품, 의류, 생활용품 등으로 구성된 구호물품 꾸러미를 전달하며 화재로 설 명절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피해 주민을 위로했다.

왕선해 회장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위해 작은 손길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구호물품을 지원하게 됐다"며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정무 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정의 손길을 보내 주신 봉현면 적십자봉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피해 가정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여상 기자bk01410@naver.com



문경 산북면 새마을회, 전통시장 활성화 '힘'



문경시 산북면 새마을회는 지난 8일 이른 아침부터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 점촌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돕고 착한소비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며 설 연휴 가족들을 위한 음식과 제수 준비를 했다.

백춘자 부녀회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산북면 새마을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임상의 면장은 "전통시장 장보기에 참여해 주신 새마을부녀회원님들과 지도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 비심리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평상시에도 많이 이용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봉화교육청, 유·초중고 희망 교원 역량 'UP'



봉화교육지원청은 지난 13일, 14일 이틀간 총무아트센터 및 서울 일원에서 봉화지역 유, 초중고 희망 교원 39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교육부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공모사업으로 봉화교육지원청이 지난해부터 문화 소외 지역인 봉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연수는 우리동네 예술학교 담당 교원의 문화예술교육 인식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대영 중앙대 예술대학원 교수의 문화예술특강, 문화예술공연 관람 및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동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취영 기자 jhy4430@hanmail.net

동 정

시도의회의장제 제1차 임시회 참석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15일 오후 4시 힐튼 경주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한다.

상반기 물종합 기술 연찬회 참석



주낙영 경주시장은 15일 오전 10시 30분 경주보문단지 내 하이코에서 열리는 상반기 물종합 기술 연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영주주민자치연합회장 이·취임식



박남서 영주시장은 15일 오후 6시 30분 영주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되는 영주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이·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장·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윤경희 청송군수는 15일 동절기를 맞아 청송지역 내 주요 사업장과 재난취약지구 현장 등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4년 수비면 노인일자리 발대식



오도항 영양군수는 15일 오전 10시 30분 수비면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되는 2024년 수비면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고령 다산면노인회, 설 합동 세배



고령군 다산면노인회는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이해 지난 13일 '2024갑진년 설 합동 세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남철 군수, 김명국 군의회 의장, 노성환 도의회 의원, 이달호 군의원, 성낙철 군의원, 조정명 명예면장, 박광보 다산농협조합장, 성현덕 다산면이장협의회장 등이 함께 참석해 합동 세배를 했다.

이남철 군수는 "우리나라 가장 큰 명절답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연휴를 편안히 보냈으며 특히 어르신들 덕분에 지역사회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2024 경주문화유산해설사교육 수강생모집

운영기간 2024년 3월 7일 ~ 6월 27일(매주 목 / 16주) | **수강료** 100,000원 | **계좌번호** 농협 351-1136-1107-13 (신라문화원) | **문의접수** 신라문화원 054-777-1950

구분	시간	강의장소
오전반	10:00~12:00	서약문화공간 (경주시 서약3길 14)
오후반	19:00~21:00	신라문화원 교육관 (경주시 금성로 254, 축협 2층)

01 신라의 통일과 화랑

날짜	세부 주제	강사
3월 07일(목)	신라의 통일과 화랑	주보돈 교수 전 경북대 사학과 교수 제12대 경북대 박물관 관장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3월 14일(목)	진흥왕	
3월 21일(목)	김춘추	
3월 28일(목)	김유신	

02 신라의 불교 공예

날짜	세부 주제	강사
4월 04일(목)	분황사 석탑의 사리장엄구와 선택여왕	한정호 교수 동국대학교 교수 전 동국대박물관 전임연구원 전 통도사성보박물관 수석연구원
4월 11일(목)	황룡사 구층탑 사리장엄구	
4월 18일(목)	전 황복사지 석탑과 나원리 석탑의 사리장엄구	
4월 25일(목)	불국사 석탑의 사리장엄구	

03 신라의 석조 미술

날짜	세부 주제	강사
5월 02일(목)	석탑 1	신용철 관장 양산시립박물관 관장 출신박물관 운영위원 통도사 본말사 문화재위원
5월 09일(목)	석탑 2	
5월 16일(목)	승탑	
5월 23일(목)	당간지주와 석등	

04 유학의 역할

날짜	세부 주제	강사
5월 30일(목)	금오산에 깃든 신라문화	오상욱 원장 경북고전번역연구원 부산대 강의 교수
6월 13일(목)	운곡서원에서 회재학을 익히다	
6월 20일(목)	원사정재와 유학의 계승	
6월 27일(목)	경주유람기로 읽는 문화유산	

주관 **신라문화원** 054-777-1950 www.silla.or.kr
후원 **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3일 김천시종합장애인복지관에서 '나눔 밥상'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혜영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회원들은 '나눔 밥상' 봉사를 위해 후원금 100만원을 기부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어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 모두에게 정성이 담긴 음식을 대접했으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식사 도우미의 역할도 했다.

회원들은 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들었으며 맛있게 드시는 모습들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혜영 회장은 "'나눔 밥상'이 단순한 한 끼의 식사가 아닌 든든한 힘이 됐으면 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이웃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김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14개 단체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한뜻으로 모여 의미를 더했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노인회 소보면분회, 신년교례회



대한노인회 소보면분회는 지난 13일 소보면분회 사무실에서 2024년 정릉의 해 소보면 노인회분회를 비롯한 기관 단체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면장, 군위농협소보지점장, 소보면 이장협의회, 유도회, 파크골프회, 서예회를 비롯한 노인회 임원 2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술재 회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마련한 신년교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와 함께 "소보면 발전을 위해 노인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기관에 새해 희망과 덕담을 전했다.

사공명상 소보면장은 앞으로 공항도시 소보면의 발전상을 설명하며 균형 추진에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구했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영덕 청년유도회 "유교 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

유림단체 신년 인사회 개최 회원 120명 모여 오찬 나뉘



영덕군 청년유도회는 회원들의 유대를 증진하고 유림지도자들의 유교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3일 영덕향교 유림회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김광열 군수, 손석수 군의회 의장과 김성철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유인한 영덕교육장, 권병운 영해향교 전교 등의 기관단체장들을 포함해 유림단체 임원과 회원 12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문묘향배, 상호세배, 참석 유림대표들의 덕담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세찬과 세주 그리고 참여자들이 함께 오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생기 회장은 "올해 갑진년 새해

를 더욱 값지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빛내주시는 여러 유림지도자와 내빈들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계

승하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열 군수는 "지역의 전통과 유구한 유교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

기 위해 노력하시는 지역 유림단체 어르신들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지역 발전의 큰 버팀목으로서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상주 낙동면, 감 재배교육 현장지원단 격려

상주시 낙동면은 지난 13일부터 감나무 재배환경 개선사업(감나무 수고 낮추기)을 실시함에 따라 현장을 방문해 농가 및 현장기술지원단 격려에 나섰다.

감나무 재배환경 개선사업이란 짧은 감나무 수고 낮추기를 통한 고령 노동력의 효율적 활용 및 상주곶감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상주곶감 브랜드의 고품격화 및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낙동면은 지난 1월 12일 면민회관에서 감나무 재배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품질의 짧은감 생산유도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영국 면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상주곶감 브랜드가 더욱 발전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든든한 '예천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지킴이'



예천군은 14일 풍양면 낙상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취약계층 건강지킴이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읍·면·의료 이용률 분석을 통해 심뇌혈관 질환자의 비중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취약

지역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특히 주민 눈높이에 맞춘 컬러링 북과 프레젠테이션(PPT) 콘텐츠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 교육하며 혈압·혈당 측정법과 금연·식습관 등 생활 습관 개선법 등을 안내한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영천 한돈 청년분과위, 고난 속 온정 '빛나'



영천 한돈 청년 분과위원회가 14일 '나눔 축산' 실천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영천시에 기탁했다.

영천 한돈 청년 분과위원회는 지역 한돈협회 회원 중 2세 경영인 3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2019년 설립 이래 해마다 연탄 기부 행사 및 성금 기탁

로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부는 최근 사료값 상승, 한돈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이웃들을 위해 나눔에 동참해 더욱 의미가 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청송 이웃에 따뜻한 한끼 나뉘요~



청송군은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에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지역 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갑진년 설맞이 명절 나눔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북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는 명절을 맞아 독거장애인 및 생활의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가구 84곳을 선정해 직원들이 직접 떡국 밀키트를 전달했다.

(사)경북지체장애인협회 청송군지회 복지지원사업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하고자 유관기관 연계사업을 통해 의료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문경 농암면 새마을회, 국토대청소



문경시 농암면 새마을회는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8일 국토대청소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활동에는 농암면 새마을협의회 회원과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총 3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행정복지센터 일대를 시작으로 대정숲에 이르는 구간의 도로변 쓰레기와 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명절 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 환경정비 캠페인도 함께 이뤄졌다.

김용기 회장은 "깨끗해진 거리를 보니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도 깨끗한 농암면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신동진 면장은 "바쁘신 일경에도 환경정비 활동에 참여해 주신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Advertisement for '문경' (Mungyeong)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building and a train. Text includes: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공정의 힘! 문경'.

‘군위 품은 대구’ 역사 쉽고 재밋고 알차게!

대구문화예술포럼, 시민주간 기념 군위 편입·지역 역사 조명 강의 다채로운 체험·교육... 3월까지 방문인증·해시태그 이벤트 팡팡



대구문화예술포럼 박물관운영본부 소속 대구근대역사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향토역사관은 “2024년 대구시민주간(2월 21일-28일)”을 맞아 ‘박물관과 함께’, ‘대구 역사 아는 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열린 대구, 위대한 대구정신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올해 대구 시민주간 행사에 대구시 3개 공립박물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박물관운영본부는 시민들이 대구 역사와 대구 정신에 대해 이해하고 군위군을 품은 더 커진 대구를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는 크게 ‘더 커진 대구야, 역사랑 놀자’, ‘박물관과 함께, 대구 역사 아는 날’, ‘열린도시 대구 역사 조명을 위한 학술대회’ 등이 개최된다.

행사 진행은 대구시민주간(2월 21일-28일) 기간에만 한정하지 않고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 더 커진 대구야, 역사랑 놀자(2월 21일-3월 17일)

‘더 커진 대구야, 역사랑 놀자’는 군위군을 품은 더 커진 대구를 체험으로 느껴볼 수 있게 3개 공립박물관에서 진행한다.

대구 지도 대형 퍼즐 체험과 대구의 문화재와 명소를 포함한 ‘내가 상상하는 대구’를 그려보고 꾸밀 수 있다. 3개 박물관을 모두 방문하고 스탬프 찍기(방문인증)를 완성하면 매일 선착순 2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며 행사 기간 중에 매일 3개 박물관에서는 핸드크로퍼를 배부한다. SNS로 해시태그(#대구시민주간)와 방문인증 사진을 게시하면 행사 종료 이후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 박물관과 함께, 대구 역사 아는 날(2월 21일-3월 27일)

‘박물관과 함께, 대구 역사 아는 날’은 더 커진 대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특강과 답사, 문화행사를 3개 공립박물관에서 개최한다.

오는 21일 오후 2시에는 대구근대역사관에서 강태원 역사교사를 초청해 ‘근대학교 설립과 변천으로 본 대구’

특강을 개최한다. 28일에는 주요 학교를 찾아가는 ‘학교에서 만나는 대구 역사와 대구 정신’ 답사를 진행한다.

23일 오후 2시에는 대구향토역사관 주관 ‘삼국유사를 품은 대구’ 특강을 개최한다. 백제사를 비롯한 한국고대사 전문가로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고대사학회장을 역임한 노중국 명예교수가 강연을 한다.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이제 대구는 ‘삼국유사의 시작과 끝’을 아우르는 도시가 됐다. 2월 특강에 이어 3월에는 2차례(13일, 27일) ‘일연과 삼국유사 따라 대구 역사 속으로’라는 주제로 답사를 진행한다.

이달 24일 오후 2시 대구방짜유기박물관 야외공연장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만나는 대구의 전통문화’라는 주제로 공산농요와 수간춤 등 대구시 지정 무형문화유산을 만나는 시간을 마련한다. 정월대보름인 이날 공연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21일과 23일 진행되는 역사특강에는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강연 장소는 모두 대구근대역사관 문화강좌실이다.

사진 참가 신청(30명)을 받고 있으며 잔여석의 경우 당일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참가 신청은 대구근대역사관(053-606-6436)과 대구향토역사관(053-606-6422)으로 하면 된다.

신형석 박물관운영본부장은 “대구 역사문화를 홍보하고 있는 대구시 3개 공립박물관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구시민주간 행사에 참여한다”라며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많이 오셔서 역사공부의 재미도 느껴보고 대구 역사에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두용기자kwondrumkakao@daum.net



민족의 얼·흥 담은 ‘안동 탈놀이’ 전 세계 이목 사로잡다

시, 베네치아 카니발 대미 장식 홍보 부스 운영 안동의 미 알러

‘마르코폴로의 여행’을 주제로 10일간 열린 이탈리아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는 폐막식에서 안동이 자랑하는 세계유산 하회별신굿탈놀이 무대가 펼쳐졌다.

공연단은 지난 13일 산마르코 광장에서 신명 나는 공연으로 전 세계인과 함께 흥겨운 마당을 열었다. 각 나라에 찾아온 관광객들은 흥겨운 탈놀이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풍자와 해학의 묘짓에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해마다 사순절을 앞두고 10여일간

펼쳐지는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는 이탈리아의 가면을 중심으로 화려한 퍼레이드와 경연을 선보이는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대표축제이다.

올해는 대한민국과 이탈리아가 수교를 맺은 지 14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을 대표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단의 이번 공연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총 10개 마당 중 4개 마당을 선보인 안동시립안동탈놀이공연단은 한국 고유의 흥을 한껏 발산하며 모여든 관객들을 금세 매료시켜 열렬한 박수와 찬사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태평소 소리와 함께 신내림을 받은 각시광대가 무동을 타는 무동마당을 시작으로, 주지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

마당을 통해 관광객들과 함께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어깨춤을 추고 호흡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공연무대 옆 부스에서는 안동시 관광홍보 책자를 나눠주고 하회탈 목걸이를 걸어주며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의 활발한 현상 홍보도 펼쳤다.

특히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은 공연단과의 포토타임 이벤트는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했다.

앞서 지난 9일 이탈리아를 방문한 권기창 안동시장과 공연단은 이성호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와 전제진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장을 만나 이탈리아의 한국 입양아 지원단체인 이타코(ITAKO)를 21세기 인문가치포럼에 초청하는 것을 협의했다. 또한

11일에는 베네치아 시의회 세바스티아노 코스타롱가 경제위원장과 마시모 안드레올리 카니발 축제위원장을 만나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의 가면 공연단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기창 시장은 “베네치아와 안동은 물의 도시라는 것과 가면축제를 한다는 것, 옛것의 아름다움에서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간다는 공통점이 있다”라며 “하회별신굿탈놀이 이탈리아 최대 축제인 베네치아 카니발 축제에 참여하게 돼 자랑스럽고 앞으로도 안동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명수기자oms7227@nate.com

작가의 삶을 조각으로 꽃 피워...철곡 ‘찬란한 울림’展

4월 7일까지 예테미술관에서

철곡문화관광재단은 철곡공예테마공원 예테미술관에서 ‘찬란한 울림: Life is vibrant’展을 오는 4월 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철곡 작가 김성수와 서울 작가 임상빈이 소통을 통해 철곡 전시예술의 정체성 정립과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수 작가는 조각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과 미의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원시적인 생명력을 세련된 미적

감각으로 표현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꽃밭, 인간 군상, 모빌 형태의 설치 작품 등을 선보인다.

어린 시절 아픔과 상처에 관한 치유, 날고 싶은 욕망과 꿈부터 꽃밭에서 노니는 상상의 무대까지 크게 확장돼 왔고 그가 만나온 사람들이 400여점의 인형으로 조각됐다.

임상빈 작가는 사진과 그림,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실험적 시도를 펼쳤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다양한 색

감의 화폭 작품을 선보인다.

중첩된 다층 개념으로 화면 위에 수많은 붓질을 중첩해 쌓아 올린 물감층의 다층적 입체이자 평면과 대면함을 보여준다.

작가의 수많은 붓질 표현은 그야말로 천대만상(千態萬象) 우리네 모습이다. 손영실 재단 대표이사는 “생동감 있는 색채와 조형물로 구성된 특색있는 작품들을 통해 철곡의 봄을 마음껏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홍달기자song031700@naver.com



더블에이치플랜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칼럼

‘댐 버스터’와 가이 김슨 그리고 혐오(上)

임용한
KI인문경영연구원 대표



◆ 물수제비 폭탄

필자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다. 당시 나는 역사책을 좋아해서 구할 수 있는 이야기책은 다 찾아서 읽었다. 당시에는 헤로도토스의 ‘역사’도 아마도 발견되지 않았던 시대였다. 읽을 수 있는 역사책이 없어서 역사소설도 마다하지 않고 역사를 소재로 한 책은 구할 수 있는 대로 읽었다. 그러다가 수십 권짜리 시리즈물을 발견했는데 2차세계대전의 전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였다. 그중에 1943년 5월 16일 영국 공군의 투르 지역 댐 공습을 다룬 이야기도 있었다.

투르 지역은 독일 최대의 공업지역이다. 당연히 연합군 공습의 제1목표였다. 댐은 공업용수를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전기를 생산했다. ‘댐을 파괴해 전력 생산을 끊고 홍수를 일으키자’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댐을 파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일단 일반 폭탄은 댐을 맞히기도 어렵고 맞힌다고 해도 댐의 좁은 상층부를 때릴 뿐이다. 관잖은 방법은 어뢰였다. 댐이 중간 하단에 구멍을 내면 구멍으로 물이 터져 나오면 댐이 붕괴한다. 하지만 독일도 이런 방법을 예상해서 호수에 그물을 쳐 댐이 이 때 댐스 윌리시라는 도전적인 항공 엔지니어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낸다. 원통형 폭탄을 만들어 물수제비 놀이를 하듯이 수면에 떨어트린다. 그러면 원통 폭탄이 통통 튀면서 그물을 건너뛴다. 댐 벽에 부딪혀 가라앉아서 일정 수압이 되면 폭발한다.

이 폭탄을 도약폭탄이라고 했다. 이론은 그럴듯한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다. 물수제비 놀이도 손에 꼭 맞고 무게도 적당한 돌을 고르고 적절한 각도와 힘으로 던져야 제대로 된다. 폭격기에서 폭탄을 던져 튀게 한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만화 같은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그것은 생략한다. 영국 공군은 이 폭탄을 던질 엘리트 승무원을 선발하고 훈련했다. 3월에 이 특수임무를 위해 617 항공대대를 조직하고 승무원을 편성했다. 대장은 24세의 가이 김슨 중령으로 당시 24세의 젊은이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기발한 작전은 성공한다. 19대의 폭격기가 출동해 8대가 추락했지만 댐 2개를 폭파했고 하나에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 이 이야기는 1955년 ‘댐 버스터’ (The Dam Busters)란 이름의 영화로도 제작되는 등 인기 있는 전쟁 다큐멘터리 소재가 됐다.

다시 필자의 추억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가 너무 기발해서 책을 읽은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때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단 한 명도 내 말을 믿지 않았다. 심지어 친했던 친구들이 내게 화를 내기까지 했다. “네가 이렇게 뻥이 심한 녀석인 줄 몰랐다”. 또 다른 친구들은 도와줄 수는 없고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날 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식 밖의 이야기는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분노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었다. ‘자신의 알팍한 지식 안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 이런 자세만 견지해도 보통 이상의 인재가 될 수 있다.

그 후에 영화 ‘댐 버스터’가 TV에서 방영됐다. 나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펄쩍펄쩍 뛰었다. 그 친구들에게 당장 뛰어가서 말해주고 싶었지만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중학교 친구들과과는 다 헤어져서 아무 소용이 없었다.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 사건이 내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교훈과 강인함을 줬기에 그 친구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댐 버스터’ 관련 영화나 다큐멘터리는 항상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 작전 성공 후에 김슨 중령은 영웅이 되었고, 617항공대대는 댐버스터라는 별명을 얻었다. 영웅이 된 김슨은 전쟁 중인 1944년에 개전초부터 그때까지 폭격기 조종사로서의 전투 경험을 잡지에 연재했다. 이 책은 1946년에 출간되었는데, 약 80년 만에 한국 서점에 등장한 것이다.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당장 사서 단숨에 읽었다. 600페이지가 넘는 책이라 좀 아팠는데, 댐 버스터 작전에 한정된 회고록이 아니었다. 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부터 44년까지 김슨 중령은 17회가 넘는 폭격임무를 수행했다. 그가 겪은 무수한 작전, 자신과 동료들의 애환, 폭격 전술, 공중전의 요령까지 그의 전쟁 경험을 집대성한 회고록이었다. 댐 버스터 작전 이야기는 10%도 되지 않았다.

(2438호에 계속)
뉴스1

독자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당부의 말

김송화
성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올 겨울철에는 유독 추운 날씨로 난방기구나 전기장판 사용이 늘면서 화재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재 발생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안전 수칙 몇 가지를 알아보자.

▲첫째 난방기구 사용 시 안전 수칙을 지키자.

먼저 난방기구는 KC 승인 마크를 확인해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을 하고 장시간은 사용하지

말고 중간중간 꺼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 많아서 멀티탭으로 다른 제품들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며 화재 예방을 위해 벽으로부터 2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평평한 곳에서 사용해야 하며 인화물질 등 쉽게 불이 붙는 가연물을 주변에 두지 말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할 때 난방기가 손상돼 화재 위험이 있어서 습한 곳에서는 난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전기장판 올바른 사용 및 관리를 하자.

장기간 보관 과정에 접했던 부분의 열선 피복 손상으로 발열되거나 전기장판 위 천연고무 침구류를 장시간 놓아둘 때 화재 위험이 크다. 미사용 시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 장시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 가정 내 소화기를 비치하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화재이다. 초기화재 시에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소화기를 비치했다라도 평상시 사용 요령과 압력이 정상범위인 초록색에 있는지 소화약제가 균지 않도록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소화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주는 등의 평소 관리도 필요하겠다.

위와 같이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진다면 화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고 난방기구 및 전기용품 안전 수칙을 항상 인지하며 정기적인 검사로 인해 화재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설

클린스만 거취, 정몽규 회장이 풀어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내용으로 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한 ‘클린스만호’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최악의 경기력에도 시종일관 웃기만 했던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축구 팬부터 정치권까지 원성이 자자한데 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최근 끝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한국은 요르단과의 4강전에서 유효 슈팅 1개도 때리지 못하는 수모 끝에 0-2로 완패했다.

한창 전성기인 손흥민(토트넘)을 포함해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강인(파리생제르맹), 황희찬(울버햄튼) 등 역대 최고 멤버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결과는 처참했다.

대회 전부터 ‘감독 리스크’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우려대로였다. 16강까지 올랐던 2002 카타르 월드컵 당시 보여줬던 톱니바퀴 같았던 조직력과 빌드업은 사라졌고 선수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답답한 경기가 반복됐다.

특히 6경기에서 무려 10골을 허용했을 정도로 수비 조직력은 ‘모래알’이었다.

대표팀이 졸전을 거듭하자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는데 정작 자신은 당당한 모습으로 황당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영국 인터뷰에서 “비록 우승하지 못했으나 실패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사퇴에 대한 질문에 그는 “좋은 질문”이라고 받아친 뒤 “우리 북중미 월드컵을 향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사퇴 의사를 일축했다. “빨리 한국에서 이번 대회를 분석하겠다”던 사령탑은 최악의 분위기를 아는지 무시하는지 입국 이틀 만인 지난 10일 미국으로 휴가를 떠났다.

지난 8일 입국 당시 인천공항에서 분노한 일부 팬은 엿을 투척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으나 클린스만 감독은 손을 흔들며 개선장군처럼 들어왔다. 반복된 제책근무 논란에도 “비판은 존중하지만 나의 일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함을 보였다.

이제 관심을 끄는 것은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13일 임원 회의를 통해 아시안컵 전반을 돌아봤고 15일 전력 강화위원회를 열고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없는 클린스만 감독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회의는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정몽규 회장의 의지다. 클린스만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입김이 아주 크게 작용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를 경질할 수 있는 결정권자 역시 정 회장뿐이다.

지난 1년간 보여준 클린스만 감독은 낙제점에 가깝다. 리더십, 워크에식(직업윤리), 전문적인 역량 등 무엇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다. 대략 6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 등을 핑계로 KFA가 쉽게 클린스만 감독을 내치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도 나돌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작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인정하면, 선택이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더 이상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 전에 손을 쓰는 것이 그래도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 시키든 아니면 축구 팬들을 설득시키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몽규 회장의 결자해지뿐이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100032 http://www.gyeongsang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6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5(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칭찬이 씨앗 되어 마음에 예쁜 꽃을 피웁니다



경상투데이 칭찬 캠페인

화합으로 새로운 희망을진



2024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2024.
2.22(목) ~ 25(일)
울진군 후포항 일원



| 주최 |  울진군 | 주관 |  울진군축제발전위원회
| 후원 |  한수원주 | 한울원자력본부